

# 한선 프리미엄 리포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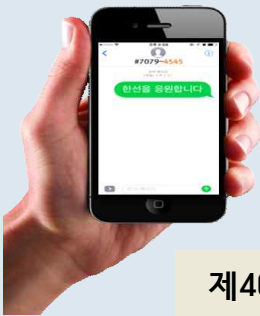
## HANSUN PREMIUM REPORT

[주 제] 한국 경제의 정상화, 무엇을 어떻게

[발제자] 강성진 한반도선진화재단 정책위의장, 고려대학교 교수

[일 시] 2022년 10월 06일(목) 오전 9시 30분

[장 소] Google Meet 온라인 세미나



☒ 문자 후원

#7079-4545

제407회 정책세미나 주요 내용

### 요 약

- 한국경제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 코로나19로 인한 글로벌 공급망 붕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인한 전쟁 장기화로 에너지 가격과 식량가격이 상승하고, 뿐만 아니라 중국 경제가 경착륙 가능성을 보이면서 나타난 글로벌 복합위기에 따른 영향이다. 국내적으로는 코로나로 인해 풀렸던 유동성이 2022년 1분기 GDP대비 127%에서 117%로 줄었다. IMF의 2022년 경제성장률 전망은 한국뿐만 아니라 전세계적으로 2021년 4월 발표 이후 지속적

으로 하락하고 있다. 내년까지 경제성장률이 떨어지는데 물가상승률은 올라갈 것으로 본다.

- 혁신성장을 통한 공급주도형 성장으로 국내의 복합 위기를 극복해야 한다. 단순 혁신이 아닌 혁신생태계 확립이 필요하다. 한국은 R&D, 과학자수, 특허출원수 등은 세계 5위 안에 들어간다. 혁신은 했으나 혁신이 생산성으로 연결되지 않고 있다. 지속가능한 경제성장을 달성하려면 혁신 주도형 경제성장정책뿐만 아니라 정치·제도적 혁신이 병행되어야 한다.

## ◆ 글로벌 복합위기와 스택그플레이션

- ◆ 한국경제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 코로나19로 인한 글로벌 공급망 붕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인한 전쟁 장기화로 에너지 가격과 식량 가격이 상승하고, 중국 경제가 경착륙 가능성을 보이면서 나타난 글로벌 복합위기 영향 때문이다. 코로나로 인해 풀렸던 유동성은 2022년 1분기 GDP대비 127%에서 117%로 급격히 줄었다. IMF의 2022년 경제성장률 전망은 한국뿐만 아니라 전세계적으로 2021년 4월 발표 이후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다. 내년까지 경제성장률이 떨어지는데 물가상승률은 올라갈 것으로 본다.

## ◆ 위기의 한국경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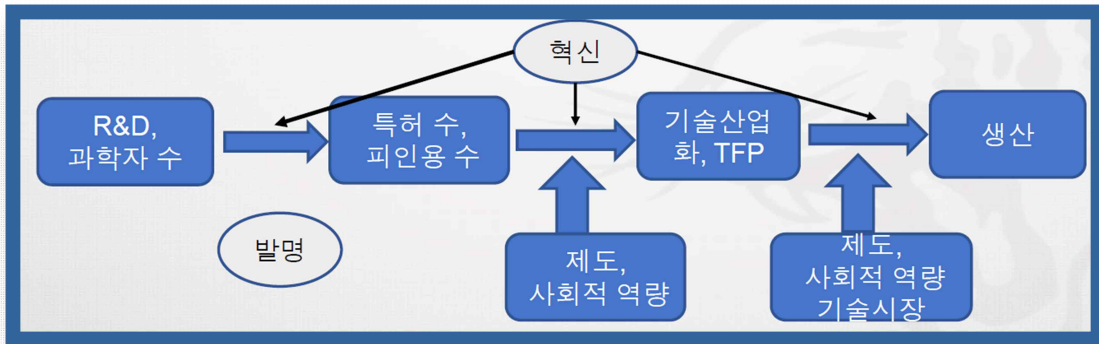
- ◆ 경제 환경이 좋지 않다. IMF는 2023년 한국의 경제성장률을 2.6으로 전망했다가 최근 1.1%까지 낮췄다. 3고 현상도 심각해지고 있다. 2022년 8월 소비가 물가상승률은 전년대비 5.71% 증가했고 환율을 달러당 원화가 1400원을 넘어섰으며 2022년 8월 25일 기준금리는 2.5%로 0.25% 인상되었다. 소비자 물가상승률은 낮아지고 있으나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 무역수지는 2022년 4월 이후 9월까지 6개월 연속 적자이며 2022년 1월부터 9월까지 288억 8000만 달러 적자다. 6개월 연속적자는 1997년 이후 25년만이다. 상품수지도 2012년 4월이후 처음으로 적자를 기록했다. 경상수지 적자 가능성도 점점 높아지고 있다. 2022년 1분기 기준 우리나라의 가계부채는 GDP대비 105.4%로 분석대상 43개국 중 호주와 스위스 다음으로 높고 기업부채 또한 115.2%로 43개국중 14위다. 국가채무는 2022년 말 1,068.8조원으로 GDP대비 49.7%로 될 것으로 예상되어 2021년 970.7조원에 비해 97.1조 증가할 것이다.

## ◆ 1970년대 스태그플레이션의 교훈

- ◆ 스태그플레이션은 스태그네이션(stagnation, 경기침체)과 인플레이션(inflation, 물가상승)이 동시에 나타나는 현상이다. 물가가 상승하면 경기가 호황이 오고 물가가 하락하면 경기 불황이 오는 조합과는 다르다. 스태그플레이션에 대한 대응은 경제성장을 희생하더라도 물가를 억제하는 정책이 최선이다.
- ◆ 1970년대의 스태그플레이션은 제 1,2차 석유파동에 의한 유가상승으로 야기되었다. 이때부터 경제학에서 자유주의 개념이 등장하기 시작했다. 30년대부터 대공황이 오면서 정부가 자본주의 체제에서도 시장경제를 컨트롤 할 필요가 생겼다고 하면서 수정자본주의가 나타났다. 미국은 당시 1978년 11.5%에서 1980년에는 21.5%까지 금리를 인상했다. 2년 사이에 금리를 2배나 올렸다. 현재 선진국의 경제발전 패러다임이 케인즈의 수요주도형 경제정책에서 공급주도형 경제정책으로 전환되고 있다.

## ◆ 한국의 스태그플레이션 대응

- ◆ 스태그플레이션을 대응하기 위한 방안은 단기 방안과 장기 방안으로 나눌 수 있다. 단기 방안으로는 이자율 인상정책을 들 수 있다. 미국과의 금리역전 방지가 필요하다. 9월 25일 현재 한국(2.5%)보다 미국 기준금리(3~3.25%)가 0.75% 높다. 미국이 9월 21일 금리를 3.25%로 올리자 9월 22일 영국, 스위스, 노르웨이 등 13개국이 금리를 인상했다. 한국의 2.5%에 비해 대부분 높아졌다. 우리나라가 금리를 더욱 올려야 한다. 스태그플레이션에서 경기후퇴 및 인플레이션의 정책선택 중 인플레이션 억제에 우선순위를 뒤야 한다. 이때 가장 취약계층은 저소득층과 소상공인 등이다. 이들 사회적 약자에 대한 피해를 최소화하는 정부의 재정정책이 필요하다.
- ◆ 장기 방안으로는 공급주도형 경제성장정책이 필요하다. 혁신생태계 강화를 통한 역량 강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기존 케인즈형 수요주도형 경제정책은 효과가 없다. 제도혁신, 민간주도 강화 등 1980년대 초 공급주도형 정책 방안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



- ◆ 혁신성장을 통한 공급주도형 성장으로 국내외 복합 위기를 극복해야 한다. 단순 혁신이 아닌 혁신생태계 확립이 필요하다. 한국의 R&D, 과학자수, 특허출원수 등은 세계 5위 안에 들어간다. 혁신은 했으나 혁신이 생산성으로 연결되지 않고 있다.
- ◆ 제도 혁신이 필요하다. ‘국가는 왜 실패하는가’라는 책을 보면 국가의 성공과 실패를 결정하는 주요한 결정적 요인은 지리적, 역사적, 인종적 조건이 아니라 제도라고 한다. 한 나라의 빈부를 결정하는 데는 경제제도가 핵심적인 역할을 하지만 그 나라가 어떤 경제제도를 갖게 되는지를 결정하는 것은 정치제도다. 포용적 정치제도가 포용적 경제제도를 뒷받침할 때 국가는 번영한다. 국가가 실패하는 것은 착취적 정치제도와 착취적 경제제도 때문이다.
- ◆ 한국의 양적 혁신지표는 세계 최상위권이나 질적 혁신지표는 떨어진다. 그것이 문제다. 혁신을 생산성으로 확산시키기 위한 생태계 변화가 필요하다. 생산물 시장의 독과점 수준, 무역장벽, 관세율 등이 세계경제포럼(WEF) 생산물 시장 부문별 순위에서 굉장히 낮다. 노동 시장의 부문별 순위는 더욱 심각하다. 정리해고비용, 고용 및 해고 관행, 노사관계 협력 등은 141개국중 최하위권이다. 장기적으로 지속가능한 경제성장을 하려면 혁신주도형 경제성장정책을 펼쳐야 한다. 동시에 혁신생태계를 강화하기 위한 정치·제도적 혁신이 병행되어야 한다.

이 자료가 도움 되셨다면 수신번호 #7079-4545로 한 통 꼭~ 한선을 지지해주세요.

(한 통 2,000원)